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1차)

북클럽 팀명	사(思)랑 해(海)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0월 24일(화요일) / 장 소 : 도서관 4층 C.Square									
참석자 명단	학번	2023****	이름	강*수	학번	2023****	이름	김*연		
	학번	2023****	이름	김*은	학번	2023****	이름	윤*우		
	학번	2023****	이름	이*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진행 도서] 쓰레기에 관한 모든 것 (피에로 마틴, 알렉산드라 비올라. 북스힐. 2020.)</p> <p>책 선정 이유 환경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다. 동시에 모두가 등한시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가장 주된 원인이자 일상적인 문제인 쓰레기를 탐구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북클럽을 여는 책인 만큼 많은 문제를 포괄하는 책으로 선정했다.</p> <p>중요 문구 및 키워드 가치 있는 것은 곁에 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p> <p>전반적인 책의 구성 전반부: 쓰레기가 발생시키는 다양한 문제 중반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후반부: 쓰레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p> <p>책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수</td> <td>책을 펼치자마자 문단 구성이 일반적인 책과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놀랐다. 보통의 책은 한 페이지에 세로로 한 문단만 배치되어 있는데 이 책은 마치 잡지처럼 한 페이지에 문단이 세로로 두 개씩 배치되어 있다. 많이 접해보지 않은 구성이라 처음에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디자인이라 생각했는데 읽다 보니 적응이 됐다. 제목 그대로 정말 쓰레기에 대한 모든 걸 소개해주는 책이라 단순히 어떤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과 활용까지 나와 있어서 여러모로 많은</td> </tr> </table>								*수	책을 펼치자마자 문단 구성이 일반적인 책과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놀랐다. 보통의 책은 한 페이지에 세로로 한 문단만 배치되어 있는데 이 책은 마치 잡지처럼 한 페이지에 문단이 세로로 두 개씩 배치되어 있다. 많이 접해보지 않은 구성이라 처음에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디자인이라 생각했는데 읽다 보니 적응이 됐다. 제목 그대로 정말 쓰레기에 대한 모든 걸 소개해주는 책이라 단순히 어떤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과 활용까지 나와 있어서 여러모로 많은
*수	책을 펼치자마자 문단 구성이 일반적인 책과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놀랐다. 보통의 책은 한 페이지에 세로로 한 문단만 배치되어 있는데 이 책은 마치 잡지처럼 한 페이지에 문단이 세로로 두 개씩 배치되어 있다. 많이 접해보지 않은 구성이라 처음에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디자인이라 생각했는데 읽다 보니 적응이 됐다. 제목 그대로 정말 쓰레기에 대한 모든 걸 소개해주는 책이라 단순히 어떤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과 활용까지 나와 있어서 여러모로 많은									

	걸 얻어가는 책이었다.
*연	해양 오염 문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 환경 전반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볍게 읽기 좋은 책. 대중적인 책이지만 당장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환경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은 충분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환경 문제를 소개하는 해당 책에서 영감을 받아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은	쓰레기 문제의 실제 사례도 많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각 지역에서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다른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한 책이다. 우리는 책을 읽음으로써, 현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현재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해 의논하고자 했는데, 이 책 자체에 그러한 대안이 많이 나와 있어서 좋았다.
*연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알고 넓게 다루는 책이다. 어떤 문제를 가볍게 다루면 문제에 대한 심각성 또한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그렇지 않다. 심각성은 그대로 전달하나, 가볍게 쓰여있기에 재미까지 있는 책이었다. 환경문제를 다룬 책은 보통 고뇌하며 읽어야 하는데, 이 책은 그럴 필요가 없어 입문용으로 좋았다.
*우	잡지처럼 되어 있는 책. 사진과 그림 등 시각적인 자료가 굉장히 많이 삽입되어 있다. 책이라는 건 대개 글이 주를 이루는 매체인데 이 책은 글 외에도 사진이나 글을 통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서 읽기가 편했다.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해 막연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이나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독특한 방법들이 글에 많이 소개되어 있어서 글을 읽는게 좀 더 즐거웠다.

책에 대한 토의

*연	새똥전쟁과 관련된 부분을 제일 재밌게 읽었다. 새똥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존재했던 일이라는 게 흥미로웠고, 새똥도 에너지원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놀라웠다.
*연	에너지원으로 활용 가능한 새똥 때문에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부의 노력도 좋게 보였다. 지금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용이 없으면 보존할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가치관이 태반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에 사람들에게서 환경을 위하는 실천을 이끌어내려면 그들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정부에서 새들을 보호하는 것도, 그 새들의 똥이 경제적인 이득을 만드니까

	보호하는 것 아닌가.
*수	나는 독일 분리수거 방법이 되게 흥미로워서 책을 읽고 난 뒤 따로 찾아보았다. 독일의 분리수거 제도를 Pfand제도라고 하는데, 각각의 쓰레기통에 알맞은 쓰레기를 넣을 수 있도록 나뉘어진 쓰레기통 종류가 굉장히 세세해서 놀랐다. 또한 독일처럼 일상 속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좋겠다.
*연	음료의 가격은 내용물뿐만이 아닌 그를 담는 병의 값까지 포함한다. 책에서 나온 예시로, 빈 병을 쓰레기통에 제대로 넣었을 때 그 용기 값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연	한국에서는 델몬트가 이런 제도(보증금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L짜리 빈 생수통을 10개 정도 모르면 물 한 병을 주는 방식 등도 이미 있다.
*연	분리수거 체제는 독일이 가장 활발한 것 같은데 이러한 분리수거 체제가 주변 국가로 점점 퍼져나간 덕분에 분리수거 체제가 확립이 된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한국에서 수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수	찾다가 알게 된 건데, 독일에는 페트병이나 캔 외에도 종이 쓰레기통, 바이오 쓰레기통, 일반 쓰레기통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통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우리 학교만 봐도 외부에 분리수거가 가능할 정도로 쓰레기통 종류와 양이 풍부하지 않다. 심지어 최근에는, 사람들이 가정집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 가정집 쓰레기통이 아닌 여타 길거리의 쓰레기통 안에 그것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외부 쓰레기통을 없애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다. 그걸 들으며 나는 쓰레기통을 없애버리기보다는 차라리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해서 사람들이 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집 주변에 공원이 있는데 2-3년 전까지는 공원에 쓰레기통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다닌 탓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악취와 위생, 그리고 미관상의 문제로 공원 쓰레기통을 전부 없애버렸다. 이런 점만 봐도 쓰레기통 설치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예 없애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쓰레기를 버리겠는가. 길거리에 버리지 않겠는가.
*연	쓰레기통을 없애기보다는 그 주변을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은	쓰레기통을 줄이는 이유가 쓰레기통 주변이 너무 더러워지고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줄이는 거니까, 차라리 그 문제를 쓰레기통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할 수는 없는 걸까.
*연	분명 미관상의 이유도 있다. 그렇다면 쓰레기통을 주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수	아니면 환경미화원 분들이 쓰레기를 회수하는 빈도를 늘렸으면 좋겠다.
*연	미래에는 로봇도 노동을 하지 않을까 싶다. 만약 노동강도나 노동시간 때문에 쓰레기를 회수하는 빈도를 늘리기가 어렵다면 이 일을 로봇이 대체해도 좋을 것 같다.
*수	기술 개발이 쓰레기를 생산해낸다고 하지만, 그렇게 발전한 기술이 환경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미래과학이 이뤄야 할 목적 중 하나라고 본다.
*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비닐봉지 금지법을 제정하자 비닐봉지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심했다는 이야기도 책에 적혀 있었다. 이러한 관점과 입장의 차이에서 사회학적 함의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	아무래도 각자만의 의견과 상황이 있으니, 쟁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비닐봉지를 금지하면 환경에는 이롭겠지만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업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테니까
*연	그 부분이 딜레마라고 느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을 중지시키는 것이 이롭지만, 그러면 당장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는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
*우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로 취급하며 버리는 쓰레기 중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5%조차 안 된다는 내용을 책에서 읽었다. 우리 나름대로 재활용을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 효율성이 높지 않음에 개인적으로 놀랐다. 전체적인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쓰레기를 활용하여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다른 기능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	당장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햇반 용기부터 문제가 많다. 사람들이 햇반용기를 플라스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활용통에 넣는데, 이 햇반용기가 사실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여타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과 섞어버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활용 할 수 있는 플라스틱까지도 재활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재활용 기준이 까다롭다.
*우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문제다. 당장 음료수 라벨도 벗기는 게 귀찮다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껏 재활용을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수	플라스틱도 그 플라스틱 안에서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플라스틱들이 서로 섞이면 재활용이 안 된다는 문제가 크다. 그래서 차라리 회사가 제품을 만들 때는 그냥 버려도 바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재질로 제작했으면 좋겠다. 집에서 야구르트를 즐겨먹는데, 옛날에는 용기 라벨에 '라벨을 벗기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용기 라벨을 보니 '그

	<p>냥 버려도 돼요' 로 구가 바뀌어 있었다. 다른 음료수 라벨도 이런 식으로 재질을 바꾸면 사람들이 라벨 벗기기 귀찮다는 이유로 일반쓰레기 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재활용통에 버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재활용에 기여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p>
*우	<p>재질 이야기를 하니깐 생각이 난 건데,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을 오염시키니 대처방안으로 종이빨대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추세다. 그런데 이 종이빨대조차도 결국 플라스틱과 흡사하게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로 알고 있다.</p>
*은	<p>알바하는 매장에서 종이빨대가 아닌 다른 빨대를 쓴다. 처음에는 딱딱해서 플라스틱 빨대인 줄 알았다. 찾아보니 옥수수로 만든 생분해성 빨대였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대안책이 여럿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p>
*연	<p>다른 말이지만, 감글류에서 나온 폐기물로 실크 소재를 만들어서 패션에 활용하거나, 포도줄기로 가죽 벨트를 만드는 사례도 책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본래 폐기해야 했던 것을 업사이클링하여 활용해도 좋겠다.</p>
*수	<p>책을 읽으면서 과학의 발전은 계속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책에서 갈레리아 멜로넬라라는 나방의 유충을 소개해주는데, 이 유충이 폴리에틸렌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액을 분비한다고 했다. 과학자들이 바로 그 소화액의 성분을 추출하여 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게 인상깊었다.</p>
*연	<p>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대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제 공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도 놀라웠다.</p> <p>대변 자체에 존재하는 좋은 박테리아를 환자의 대장에 이식함으로써 병을 낫게 하는 원리라고 책에 나와 있다. 80~90%로 치료가 될 정도로 효과가 좋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치료법을 도입하지 않았나 의문이 들었다.</p>
*은	<p>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발상이 비범하다. 과학은 정말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학문 같다. 하지만 동물원 전력의 5%를 코끼리 똥을 이용하여 만드는 것만 봐도, 처리하기 힘든 배설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확실히 유익해보인다.</p>
*수	<p>쓰레기 생산은 소비지상주의로 인해 가속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지상주의의 출발이 1929년 세계대공황에서 시작이 된 것을 알고 놀랐다.</p> <p>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생긴 문제를,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해결했는데 이로 인해 제품 생산의 방식 자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특정 제품을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면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스마트폰이 있었다. 2년 주기로 내가 핸드폰을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든</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78 268 638 313"></td> <td data-bbox="638 268 1482 313">원인이 바로 이거구나 싶었고, 조금 화가 나기도 했다.</td> </tr> <tr> <td data-bbox="478 313 638 392">*연</td> <td data-bbox="638 313 1482 392">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하지 않을까. 물건이 망가져야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그 소비에서 돈을 얻으니까.</td> </tr> <tr> <td data-bbox="478 392 638 510">*수</td> <td data-bbox="638 392 1482 510">이러한 자본주의 체제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기에 바꾸기에도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환경문제를 다루면 어쩔 수 없이 경제 문제도 다루게 되는 것 같다.</td> </tr> </table> <p data-bbox="478 600 702 638">실천에 대한 논의</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78 649 638 985">*우</td> <td data-bbox="638 649 1482 985">우리나라는 흔히 말하는 배달의 민족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와 연결되어 그 단어가 좀 더 자주사용됨을 알 수 있는데, 달리 말하자면 그만큼 일회용품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다. 배달이 늘어날 경우, 일회용기 그릇이 더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배달을 함으로써 생기는 이산화탄소도 환경 오염에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배달에 대한 이점이 단순함과 간편함이라면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이점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준다면, 조금은 의미 있게 일회용품의 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td> </tr> <tr> <td data-bbox="478 985 638 1232">*은</td> <td data-bbox="638 985 1482 1232">옛날 중국집 배달을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일반 그릇 안에 음식물을 넣어 가져다주고, 사람들이 다 먹은 그릇을 다시 내놓으면 배달원들이 수거하는 형식이였다. 그런데 배달원들이 이동하기 번거롭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릇 반납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잦아서 일회용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도난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배달용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다.</td> </tr> <tr> <td data-bbox="478 1232 638 1400">*연</td> <td data-bbox="638 1232 1482 1400">아니면 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가. 학교 내 쓰레기통 관련으로 도서관이나 CLC에서 말이 많이 나온다. 도서관 쓰레기통 위에는 (특히 시험기간에) 테이크아웃 컵이 많이 놓여져 있고, CLC 4층에서는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난다.</td> </tr> <tr> <td data-bbox="478 1400 638 1601">*수</td> <td data-bbox="638 1400 1482 1601">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실천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이전에 일일알바로 재즈페스타에서 춘천E컵 홍보를 담당했던 적이 있다. 춘천E컵은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컵인데, 현재 우리 학교 브레덴코에서도 춘천E컵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td> </tr> </table>		원인이 바로 이거구나 싶었고, 조금 화가 나기도 했다.	*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하지 않을까. 물건이 망가져야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그 소비에서 돈을 얻으니까.	*수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기에 바꾸기에도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환경문제를 다루면 어쩔 수 없이 경제 문제도 다루게 되는 것 같다.	*우	우리나라는 흔히 말하는 배달의 민족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와 연결되어 그 단어가 좀 더 자주사용됨을 알 수 있는데, 달리 말하자면 그만큼 일회용품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다. 배달이 늘어날 경우, 일회용기 그릇이 더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배달을 함으로써 생기는 이산화탄소도 환경 오염에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배달에 대한 이점이 단순함과 간편함이라면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이점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준다면, 조금은 의미 있게 일회용품의 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은	옛날 중국집 배달을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일반 그릇 안에 음식물을 넣어 가져다주고, 사람들이 다 먹은 그릇을 다시 내놓으면 배달원들이 수거하는 형식이였다. 그런데 배달원들이 이동하기 번거롭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릇 반납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잦아서 일회용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도난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배달용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다.	*연	아니면 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가. 학교 내 쓰레기통 관련으로 도서관이나 CLC에서 말이 많이 나온다. 도서관 쓰레기통 위에는 (특히 시험기간에) 테이크아웃 컵이 많이 놓여져 있고, CLC 4층에서는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난다.	*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실천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이전에 일일알바로 재즈페스타에서 춘천E컵 홍보를 담당했던 적이 있다. 춘천E컵은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컵인데, 현재 우리 학교 브레덴코에서도 춘천E컵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원인이 바로 이거구나 싶었고, 조금 화가 나기도 했다.														
*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하지 않을까. 물건이 망가져야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그 소비에서 돈을 얻으니까.														
*수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기에 바꾸기에도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환경문제를 다루면 어쩔 수 없이 경제 문제도 다루게 되는 것 같다.														
*우	우리나라는 흔히 말하는 배달의 민족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와 연결되어 그 단어가 좀 더 자주사용됨을 알 수 있는데, 달리 말하자면 그만큼 일회용품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다. 배달이 늘어날 경우, 일회용기 그릇이 더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배달을 함으로써 생기는 이산화탄소도 환경 오염에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배달에 대한 이점이 단순함과 간편함이라면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이점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준다면, 조금은 의미 있게 일회용품의 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은	옛날 중국집 배달을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일반 그릇 안에 음식물을 넣어 가져다주고, 사람들이 다 먹은 그릇을 다시 내놓으면 배달원들이 수거하는 형식이였다. 그런데 배달원들이 이동하기 번거롭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릇 반납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잦아서 일회용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도난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배달용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다.														
*연	아니면 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가. 학교 내 쓰레기통 관련으로 도서관이나 CLC에서 말이 많이 나온다. 도서관 쓰레기통 위에는 (특히 시험기간에) 테이크아웃 컵이 많이 놓여져 있고, CLC 4층에서는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난다.														
*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실천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이전에 일일알바로 재즈페스타에서 춘천E컵 홍보를 담당했던 적이 있다. 춘천E컵은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컵인데, 현재 우리 학교 브레덴코에서도 춘천E컵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p data-bbox="223 1814 367 1859">활동 사진</p>															

<p style="text-align: center;">활동 소감문</p>	<p>*수</p> <p>이번에 북클럽을 같이 진행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나와 같은 학과 동기들이다. 심지어 노연이를 제외한 셋은 나와 시간표가 전혀 맞지 않아 시간을 따로 내지 않는 이상은 만나기가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함께 북클럽을 하게 되니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얼굴들을 주기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반가웠다. 아마 북클럽을 하지 않았더라면 난 아직도 이 셋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난 내 동기들을 자주 보고 싶기 때문에, 북클럽을 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느낀다.</p> <p>선배들이나 교수님의 가이드라인 없이 23학번 다섯이 진행하는 북클럽인지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지 나홀로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 북클럽을 하고 나서 걱정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활동은 언제나 즐겁다고 느낀다. 같은 책을 읽어도 주의깊게 읽은 부분이 다 달랐고 동일한 주제로 의논할 때에도 모두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환경보호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경로는 각자 차이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하나로 합쳐질 때가 바로 발전을 이룩한 지점이 아닐까. 합치점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p>
	<p>*연</p> <p>1학기, 심비우스 북클럽을 진행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학교 생활의 전반부를 책을 읽으며 이야기 나누었던 기억이 좋게 남아 있어 이번 2학기에도 심비우스 북클럽을 신청하게 되었다. 전원 사회학과 23학번이었기에 정말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우리의 주제는 해양 오염에 관해 알아보고 환경을 위하는 실천까지 하는 것이었으나, 그 전에 환경 전반에 관한 지식을 쌓는 과정이 필요했다. 환경 오염의 주 원인인 쓰레기에 관한 기본 지식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실천 방법들이 담겨 있는 이번 활동 책은 1회차 도서로 적합했다고 생각한다.</p>
	<p>*은</p> <p>이번 심비우스 북클럽 활동은 '이 활동 재미있겠는데?', '나도 해 볼 수 있을까?'라는 작디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활동을 함께 할 인원을 모으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설레었는데, 마음이 맞는 인원들과 함께하게 되어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독서를 많이 하지 않는 내게 '독서의 의미'를 각인시켜주는, 내게 있어 굉장히 의미있는 활동이다. 북클럽 활동 멤버들은 나와 같은 학과의 같은 학번으로,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그리고 스스럼없이 나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다. 환경, 구체적으로는 해양환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실천방안, 개선점 등을 나누며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할 따름이다.</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78 268 638 571">*연</td> <td data-bbox="638 268 1484 571"> <p>대망의 북클럽 활동의 첫 시작이었던 시간이었다. 내가 시간을 내서 책을 읽더라도 의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기회는 흔치 않기에 그 점이 마음에 들어 시작하게 된 활동인데, 내 기대에 맞게 첫 회기부터 각자의 의견들을 열심히 이야기해주고 참여해줘서 재밌었다. 앞으로 우리가 읽을 책들과 읽고 나서 나올 다양한 의견들, 실천들이 기대되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하는 산뜻한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p> </td> </tr> <tr> <td data-bbox="478 571 638 857">*우</td> <td data-bbox="638 571 1484 857"> <p>이번학기에 심비우스 북클럽 활동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일단 좋은 팀원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북클럽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을 뿐더러 말하면서도 북클럽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던 것 같아서 좋았다. 당연히 나도 노력할 거지만, 우리가 만나는 이 짧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나중에는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란다.</p> </td> </tr> </table>	*연	<p>대망의 북클럽 활동의 첫 시작이었던 시간이었다. 내가 시간을 내서 책을 읽더라도 의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기회는 흔치 않기에 그 점이 마음에 들어 시작하게 된 활동인데, 내 기대에 맞게 첫 회기부터 각자의 의견들을 열심히 이야기해주고 참여해줘서 재밌었다. 앞으로 우리가 읽을 책들과 읽고 나서 나올 다양한 의견들, 실천들이 기대되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하는 산뜻한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p>	*우	<p>이번학기에 심비우스 북클럽 활동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일단 좋은 팀원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북클럽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을 뿐더러 말하면서도 북클럽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던 것 같아서 좋았다. 당연히 나도 노력할 거지만, 우리가 만나는 이 짧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나중에는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란다.</p>
*연	<p>대망의 북클럽 활동의 첫 시작이었던 시간이었다. 내가 시간을 내서 책을 읽더라도 의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기회는 흔치 않기에 그 점이 마음에 들어 시작하게 된 활동인데, 내 기대에 맞게 첫 회기부터 각자의 의견들을 열심히 이야기해주고 참여해줘서 재밌었다. 앞으로 우리가 읽을 책들과 읽고 나서 나올 다양한 의견들, 실천들이 기대되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하는 산뜻한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p>				
*우	<p>이번학기에 심비우스 북클럽 활동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일단 좋은 팀원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북클럽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을 뿐더러 말하면서도 북클럽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던 것 같아서 좋았다. 당연히 나도 노력할 거지만, 우리가 만나는 이 짧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나중에는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란다.</p>				

2023년 10월 24일

참가자대표: 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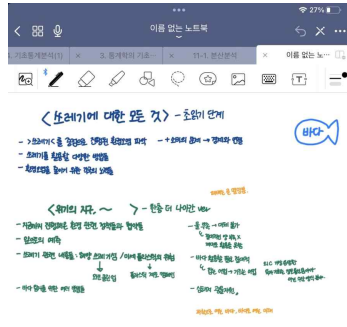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2차)

북클럽 팀명	사(思)랑 해(海)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 장소 : 도서관 4층 C.Square							
참석자 명단	학번	2023***	이름	강*수	학번	2023****	이름	김*연
	학번	2023****	이름	김*은	학번	2023****	이름	윤*우
	학번	2023****	이름	이*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진행 도서] 위기의 지구, 물러설 곳 없는 인간 (남성현. 21세기 북스. 2020.)</p> <p>책 선정 이유 어떤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면 그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존재해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와 지식 수준이 비슷한 필요가 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환경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학부생들이다. 따라서 환경을 넓고 정확하게 다루는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기 위한 기본 전제인 지식을 견고히 하고자 했다. 또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다에 대한 보호'에 있으므로 바다로 마무리 되는 이 책이 북클럽 활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p> <p>중요 문구 및 키워드 지구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파인만 경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만나는 경계. 융복합적 시선) 결국 희망은 '바다'에 있다. 패배는 곧 멸망뿐 과학으로 여는 바다, 바다로 여는 미래</p> <p>책의 구성 전반부: 용어 정리와 자연재해 중반부: 기후변화와 쓰레기, 자원부족 후반부: 바다, 해양관측과 데이터 과학</p> <p>책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p>							

*수	<p>‘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 현상은 과거에 이러한 추세를 보였다.’ 책이 지식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선형적인 방식이고, 직관적이다. 많은 이에게 상황을 알리고자 한 흔적이 보인다.</p> <p>토론을 할 때마다 생각한 것은 ‘공통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기본적인 상황 정보를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다. 동시에 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사회학과 학생들만 모여 있는 이 북클럽에서, 과학적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는 북클럽의 목표와 맞물리는 주제로 완결되는 이 책을 골랐다. 읽어보니 실제로 그랬다. 편향되지 않은 글이라 좋았다.</p>
*연	<p>환경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동안 읽은 환경 책 중에서 가장 재밌었다. 쉽고, 그만큼 빠르게 읽힌다.</p> <p>책은 처음부터 바다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대신 기후재난, 기후변화, 쓰레기 등을 다루다가 마지막에 ‘결국 바다가 원천이며 우리는 바다에서부터 기후문제 해결의 답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책 <쓰레기에 관한 모든 것> 이 환경 수복을 위한 실천 현황을 알려주었다면, 이번 책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즉 ‘미래의 목표’를 알려주었다고 생각한다.</p>
*은	<p>과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책에 나오는 과학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었다. 책에 나오는 과학기술 중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프로파일링 플롯은 부력을 조절해서 오르내리면서 수집된 데이터와 위치 정보를 전송한다. 정해진 위치에서 1주일 이상 머물며, 해류를 따라 이동하기에 그 기간에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양의 염도, 온도 등을 해류의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내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다.</p>
*연	<p>쓰레기로 인해 대두되는 문제를 이전 책보다 상세히 설명한 책이다. 다만, 처음에는 진입장벽이 있었다. 책을 펼치자마자 용어 정리부터 시작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비장하게 용어부터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지?’ 싶어서 주춤거렸다. 초반부에는 흔하게 접하는 단어라 괜찮았는데 뒤로 갈수록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왔다. 그러나 그 덕분에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p> <p>첫 번째 책은 가볍게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 인식에 도움이 되었다면, 이번 책에서 그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이전에 읽은 책과 이번에 다룬 책, 그리고 다음에 읽을 책까지 이어지는 방향성을 잡으면서 읽고자 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읽은 <쓰레기에 대한 모든 것>에서 해양쓰레기섬에 대해 언급을 했었다면 이번 <위기의 지구, 물러설 곳 없는 인간>에서는 이 쓰레기섬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션 클린 업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있다.</p>

+ 책 읽는 방법:

책을 보면서 중요해보이거나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것에 접목시키면 좋을 내용들을 메모하며 책을 정독했다.



***우** 특정 현상을 측정할 수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설명해주는 게 좋았다. 다른 책에 비해 그래프가 많이 삽입되어 있는데다가 직관적인 디자인이라 바로 이해가 된다. 당장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현실자각이 잘 이루어졌다. 위험성을 알았다.

책에 대한 토의

*연	“과학이 진단을 내리면 공학이 해결을 한다.”는 문장이 인상깊었다. 실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듣고 있는 사회학 전공 수업에서도 ‘문제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내려야지만 올바른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에 더욱 와닿았다.
*연	의문이 있다. 지금 과학과 공학 발전을 위해 파괴되는 지구 환경이 너무나도 많고, 피해 또한 크다. 환경을 위해 과학과 공학을 발전시킨다고는 하지만, 그건 결국 환경파괴의 일환이 아닌가. 과학과 공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험과 연구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을 살리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행태는 모순적이지 않나. 뭘 위해 발전시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를 하는 이유는, 기대효과가 그 피해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실험을 함으로써 피해를 입히는 양보다 실험을 함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는(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결과물을 탄생시키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본다.
*연	그런데 걱정이 있다. 공학의 발전은 이 지점까지 있는데 환경 파괴 지점이 이 정도면 공학이 발전하는 것처럼 환경 훼손 정도도 심해지는 거니까, 그로 인해 생기는 간극은 어떻게 메꿀 것인가. 발전시킨다 해도 결국 현상유지 아닐까.
*우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그러한 간극을 줄이려고 하는 거다.
*연	그런데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환경을 훼손하니까 그 간극을 줄이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기술이 발전한 만큼 환경 또한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은	기술이 발전해도 그 간격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그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유는 그 발전을 통해서 간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의 정도와 환경 파괴 사이의 간격은 더 늘어난다. 왜냐하면 이미 유지되고 있는 체제(이전에 환경을 파괴했던 체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이 간격을 그나마, 아주 적은 정도라도 좁히기 위해서는 발전이 필요하다.
*연	이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된 체제를 한순간에 중지시킬 수 없으니까.
*수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체제를 멈추거나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지금 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한다.
*연	방금 우리 굉장히 사회학과 같았다. 만족스럽다.
*연	바다와 관련된 국제 협약이 있다는 것과 지구 온도가 5도 오르면 인간이 살기 급속도로 어려워지는 티핑포인트, 그리고 물 부족에 대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물 부족이었다. 물 부족은 절대적인 물의 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양을 활용할 방법이 없는 것이므로 대처방안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수	안 그래도 책에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식량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 방안도 바다에 있다고 했다. 그 대처 방안 중에 해양담수화가 있지 않을까.
*연	해양 담수화 - 바다에 있는 소금물을 어떻게 식수로 만들지가 제일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이것만 해결되어도, 가장 큰 불은 끄는 것 아닌가.
*연	그런데 이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고 있고, 이전부터 축적되어온 미세 플라스틱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아닐까. 그 위험물질과 성분들을 모두 제거해야 비로소 담수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도입할 수 없는 것 같다.
*수	그러고 보니 바닷물에서 소금을 생산하곤 하던데,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고 남은 바닷물은 염분이 덜해지는 건가?
*은	그렇지 않을까. 염분을 덜어내니까.
*수	찾아보니 담수화 설비가 이미 설치된 지역도 있는 것 같다.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한다. 삼투압을 이용한 담수시설인 모양이다.
*연	싱가포르에만 5개가 있다. 칠레에는 연어 양식까지 아우른 담수화

	시설이 있는 모양이다. 담수와 기르는 어업을 한번에 하고 있다. 책에서 주장하는 것 중 하나인 어업의 형태 변화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인데, 신기하다.
*은	육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산이 바다까지 퍼져 나간 걸까.
*연	이런 설명이 적혀 있다. '연어를 사육한 물을 99% 재활용하는 폐쇄식 순환 여과 방식.'
*수	찾아보니까 해수담수화 시설이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발생시키고, 고염도 잔여물을 다시 바다로 방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우리도 살면서 환경보호까지 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느낀다.
*연	현대 과학기술로는 어려운 게 아닐까. 게다가 해양산성화가 진행되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어폐류들의 골격이 약해지고 부식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먼 미래에는 해수욕이 금지되고 어류 섭취도 제한되지 않을까?
*수	우주보다 해양이 더 개척이 안 됐다는 게 놀라웠다. 특히 심해와 관련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 바다의 85%가 연구가 안 됐다니. 그런데 해양이 우주보다 연구하기가 어렵다니.
*연	심해가 우주보다 더 가깝고 심지어 우주는 상층권 등의 대기와 압력을 뚫고 탐사를 하러 나가야 하는데, 같은 지구 내에 있는 심해가 오히려 우주보다 연구가 덜 되었다는 것이 신기하다.
*연	책에서도 나와있는데, 심해가 산소 농도도 없고 높은 기압을 견뎌야 한다는 악조건이 있어서 연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은	우리가 우주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호기심과 탐구심이 우주에 더 크게 작동했을지도 모르겠다. 심해까지는 아니겠지만, 물 속에 들어가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우주는 지금 우리 넷 중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이고, 이걸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킬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우주가 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심해 탐사보다 우주 탐사에 더 집중한 건 아닐까.
*수	거기에 우주는 완전 무중력 상태가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도 많지 않은데, 바다 같은 경우는 표면장력과 물살, 생명체 등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해 우주보다 위험성이 큰 것도 있을 것 같다.
*연	사람이 잠수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수심 범위는 해양 표면으로 국한된다고 한다. 수천미터 수심의 심해에서는 빛이 없고 수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비를 내려보내는 일조차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	우주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주복으로는 견딜 수 있는 압력이 심해의 압력을 견디지는 못하는 모양인 걸까.
*은	그러고 보니 심해 생물 중에서는 스스로 빛을 내는 생물도 있다. 그런 그 생물들의 빛에서는 열이 안 나는 건가?
*우	열이 나는 생물도 있고, 아닌 생물도 있고. 생물마다 다르지 않을까.
*수	'지구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온 것이'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78 268 630 528"></td> <td data-bbox="630 268 1482 528"> <p>다.'라는 문장이 가장 감명 깊었다. 환경 동아리를 하는데, 그 동아리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전 세대와 우리 세대가 저지른 문제로 인해 아무 죄도 없는 미래 세대가 피해를 받는다. 그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환경을 되살리고 자원을 아낄 것을 강요받는다." 원죄는 과거에 있는데 업보는 미래가 감당해야 하는 사안이 된 현 상황이 안타깝고 부조리하다고 느꼈다.</p> </td> </tr> <tr> <td data-bbox="478 528 630 817">*연</td> <td data-bbox="630 528 1482 817"> <p>태풍이랑 바다가 관련있다는 것도 인상깊었다.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실제 기상과 일치하지 않는 일이 빈번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커서 관측 오차가 있어도 직접적으로 겪는 피해나 상황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오차에도 예측과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을 맞이한다. 기상 관측은 정말 정밀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p> </td> </tr> <tr> <td data-bbox="478 817 630 936">*수</td> <td data-bbox="630 817 1482 936"> <p>그리고 책에서 좀 놀랐던 것은. 태양광을 막아서 지구를 냉각시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발상 자체가 독특하고 비범하다고 생각했다.</p> </td> </tr> <tr> <td data-bbox="478 936 630 1014">*연</td> <td data-bbox="630 936 1482 1014"> <p>동감한다. 에어로졸이나 화산재를 인공적으로 발생시켜서 태양광을 차단시키는 방식이 정말 놀라웠다.</p> </td> </tr> <tr> <td data-bbox="478 1014 630 1093">*은</td> <td data-bbox="630 1014 1482 1093"> <p>궁금한 게 있다. 그런 생각은 한시적으로만 냉각시키는 건지,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냉각을 시키는 건지.</p> </td> </tr> <tr> <td data-bbox="478 1093 630 1211">*수</td> <td data-bbox="630 1093 1482 1211"> <p>보면 책에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0.5도 떨어진 사례가 적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마 저 발상이 이 화산 폭발 사례에서 영감을 받고 도출된 것 같다.</p> </td> </tr> <tr> <td data-bbox="478 1211 630 1373">*우</td> <td data-bbox="630 1211 1482 1373"> <p>냉각화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초등학교 때,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인공위성으로 무풍 에어컨을 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바람 있는 에어컨은 육지까지 도착하지 못할 테니까.</p> </td> </tr> </table> <p>북클럽 마무리 후 *은의 제안: 책 또는 토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느낀 점을 포스트잇에 적기. 모두가 적고 칠판에 붙였다.</p>		<p>다.'라는 문장이 가장 감명 깊었다. 환경 동아리를 하는데, 그 동아리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전 세대와 우리 세대가 저지른 문제로 인해 아무 죄도 없는 미래 세대가 피해를 받는다. 그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환경을 되살리고 자원을 아낄 것을 강요받는다." 원죄는 과거에 있는데 업보는 미래가 감당해야 하는 사안이 된 현 상황이 안타깝고 부조리하다고 느꼈다.</p>	*연	<p>태풍이랑 바다가 관련있다는 것도 인상깊었다.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실제 기상과 일치하지 않는 일이 빈번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커서 관측 오차가 있어도 직접적으로 겪는 피해나 상황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오차에도 예측과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을 맞이한다. 기상 관측은 정말 정밀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p>	*수	<p>그리고 책에서 좀 놀랐던 것은. 태양광을 막아서 지구를 냉각시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발상 자체가 독특하고 비범하다고 생각했다.</p>	*연	<p>동감한다. 에어로졸이나 화산재를 인공적으로 발생시켜서 태양광을 차단시키는 방식이 정말 놀라웠다.</p>	*은	<p>궁금한 게 있다. 그런 생각은 한시적으로만 냉각시키는 건지,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냉각을 시키는 건지.</p>	*수	<p>보면 책에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0.5도 떨어진 사례가 적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마 저 발상이 이 화산 폭발 사례에서 영감을 받고 도출된 것 같다.</p>	*우	<p>냉각화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초등학교 때,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인공위성으로 무풍 에어컨을 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바람 있는 에어컨은 육지까지 도착하지 못할 테니까.</p>
	<p>다.'라는 문장이 가장 감명 깊었다. 환경 동아리를 하는데, 그 동아리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전 세대와 우리 세대가 저지른 문제로 인해 아무 죄도 없는 미래 세대가 피해를 받는다. 그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환경을 되살리고 자원을 아낄 것을 강요받는다." 원죄는 과거에 있는데 업보는 미래가 감당해야 하는 사안이 된 현 상황이 안타깝고 부조리하다고 느꼈다.</p>														
*연	<p>태풍이랑 바다가 관련있다는 것도 인상깊었다.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실제 기상과 일치하지 않는 일이 빈번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커서 관측 오차가 있어도 직접적으로 겪는 피해나 상황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오차에도 예측과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을 맞이한다. 기상 관측은 정말 정밀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p>														
*수	<p>그리고 책에서 좀 놀랐던 것은. 태양광을 막아서 지구를 냉각시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발상 자체가 독특하고 비범하다고 생각했다.</p>														
*연	<p>동감한다. 에어로졸이나 화산재를 인공적으로 발생시켜서 태양광을 차단시키는 방식이 정말 놀라웠다.</p>														
*은	<p>궁금한 게 있다. 그런 생각은 한시적으로만 냉각시키는 건지,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냉각을 시키는 건지.</p>														
*수	<p>보면 책에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0.5도 떨어진 사례가 적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마 저 발상이 이 화산 폭발 사례에서 영감을 받고 도출된 것 같다.</p>														
*우	<p>냉각화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초등학교 때,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인공위성으로 무풍 에어컨을 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바람 있는 에어컨은 육지까지 도착하지 못할 테니까.</p>														
<p>활동 사진</p>															

활동 소감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수</td> <td>모두가 바쁜 시간내고 모이는 시간이다. 이번 북클럽은 내가 고른 책을 가지고 진행하는 북클럽이었는데 다들 책을 재밌게 읽은 것 같아서, 내가 쓴 책은 아니지만 많이 뿌듯했다. 나 역시 책에 만족했다. 일단 책 자체에서 얻어갈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 내용이 풍부한 책이었다. 비록 모두가 바쁜 탓에 책을 꼼꼼하게 읽고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눌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매번 성실하게 진행되는 것만으로 감지덕지라고 생각한다.</td> </tr> </table>	*수	모두가 바쁜 시간내고 모이는 시간이다. 이번 북클럽은 내가 고른 책을 가지고 진행하는 북클럽이었는데 다들 책을 재밌게 읽은 것 같아서, 내가 쓴 책은 아니지만 많이 뿌듯했다. 나 역시 책에 만족했다. 일단 책 자체에서 얻어갈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 내용이 풍부한 책이었다. 비록 모두가 바쁜 탓에 책을 꼼꼼하게 읽고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눌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매번 성실하게 진행되는 것만으로 감지덕지라고 생각한다.
	*수	모두가 바쁜 시간내고 모이는 시간이다. 이번 북클럽은 내가 고른 책을 가지고 진행하는 북클럽이었는데 다들 책을 재밌게 읽은 것 같아서, 내가 쓴 책은 아니지만 많이 뿌듯했다. 나 역시 책에 만족했다. 일단 책 자체에서 얻어갈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 내용이 풍부한 책이었다. 비록 모두가 바쁜 탓에 책을 꼼꼼하게 읽고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눌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매번 성실하게 진행되는 것만으로 감지덕지라고 생각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연</td> <td>공적인 일정이 많을 수록 시간을 내어서 책을 읽기 쉽지 않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책을 자발적으로 읽는 것은 더더욱. 그런 점에서 모두가 빠짐없이 모여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이번 활동 시간도 정말 소중했다. 대학교 입학 전까지 나는 환경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점점 피부에 와닿는 극심한 기후 변화는 필연적으로 환경의 실태와 현 실천 방안을 살펴보게끔 했다. 이번 2회차 활동 도서는 그런 점에서 환경에 대한 문외한이 기본 지식을 쌓기에 정말 적합한 도서였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마지막으로 포스트잇에 인상 깊었던 구절과 느낀 점을 적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얻어가는 것이 많았던 2회차 활동이었다.</td> </tr> </table>	*연	공적인 일정이 많을 수록 시간을 내어서 책을 읽기 쉽지 않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책을 자발적으로 읽는 것은 더더욱. 그런 점에서 모두가 빠짐없이 모여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이번 활동 시간도 정말 소중했다. 대학교 입학 전까지 나는 환경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점점 피부에 와닿는 극심한 기후 변화는 필연적으로 환경의 실태와 현 실천 방안을 살펴보게끔 했다. 이번 2회차 활동 도서는 그런 점에서 환경에 대한 문외한이 기본 지식을 쌓기에 정말 적합한 도서였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마지막으로 포스트잇에 인상 깊었던 구절과 느낀 점을 적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얻어가는 것이 많았던 2회차 활동이었다.
	*연	공적인 일정이 많을 수록 시간을 내어서 책을 읽기 쉽지 않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책을 자발적으로 읽는 것은 더더욱. 그런 점에서 모두가 빠짐없이 모여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이번 활동 시간도 정말 소중했다. 대학교 입학 전까지 나는 환경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점점 피부에 와닿는 극심한 기후 변화는 필연적으로 환경의 실태와 현 실천 방안을 살펴보게끔 했다. 이번 2회차 활동 도서는 그런 점에서 환경에 대한 문외한이 기본 지식을 쌓기에 정말 적합한 도서였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마지막으로 포스트잇에 인상 깊었던 구절과 느낀 점을 적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얻어가는 것이 많았던 2회차 활동이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은</td> <td>이번 2회차 활동에서는 내가 건의한 ‘포스트잇 활동’을 진행하였다. 포스트잇 활동은 내가 수업에서 알게 된 활동인데, 우리 북클럽에 이를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포스트잇에 우리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이라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을 적어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북클럽 활동을 통해 무엇을 알아갈 수 있었는지, 어떠한 사고를 나누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의미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구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다.”, 파인먼 경계(Feynman Line)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맞닿는 지점. 1회차에는 쓰레기, 해양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과정이었다. 건물을 세우기 전, 기반작업과 철근작업이 이 단계에 해당할 것이다. 이번 2회차에서는 기초적인 지식들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지식을 쌓는 활동이었다. 이도 마찬가지로 건설에 비유하자면, 콘크리트로 내부를 보강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깊게 환경에 대해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 3회차에서는 더욱 심화된 내용을 읽고 나누며, 4회차 실천까지 느리지만 확실하게 걸어 나가고자 한다.</td> </tr> </table>	*은	이번 2회차 활동에서는 내가 건의한 ‘포스트잇 활동’을 진행하였다. 포스트잇 활동은 내가 수업에서 알게 된 활동인데, 우리 북클럽에 이를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포스트잇에 우리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이라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을 적어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북클럽 활동을 통해 무엇을 알아갈 수 있었는지, 어떠한 사고를 나누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의미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구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다.”, 파인먼 경계(Feynman Line)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맞닿는 지점. 1회차에는 쓰레기, 해양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과정이었다. 건물을 세우기 전, 기반작업과 철근작업이 이 단계에 해당할 것이다. 이번 2회차에서는 기초적인 지식들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지식을 쌓는 활동이었다. 이도 마찬가지로 건설에 비유하자면, 콘크리트로 내부를 보강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깊게 환경에 대해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 3회차에서는 더욱 심화된 내용을 읽고 나누며, 4회차 실천까지 느리지만 확실하게 걸어 나가고자 한다.	
*은	이번 2회차 활동에서는 내가 건의한 ‘포스트잇 활동’을 진행하였다. 포스트잇 활동은 내가 수업에서 알게 된 활동인데, 우리 북클럽에 이를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포스트잇에 우리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이라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을 적어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북클럽 활동을 통해 무엇을 알아갈 수 있었는지, 어떠한 사고를 나누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의미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구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다.”, 파인먼 경계(Feynman Line)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맞닿는 지점. 1회차에는 쓰레기, 해양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과정이었다. 건물을 세우기 전, 기반작업과 철근작업이 이 단계에 해당할 것이다. 이번 2회차에서는 기초적인 지식들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지식을 쌓는 활동이었다. 이도 마찬가지로 건설에 비유하자면, 콘크리트로 내부를 보강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깊게 환경에 대해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 3회차에서는 더욱 심화된 내용을 읽고 나누며, 4회차 실천까지 느리지만 확실하게 걸어 나가고자 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연</td> <td>책 읽고 소감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서로 환경과</td> </tr> </table>	*연	책 읽고 소감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서로 환경과	
*연	책 읽고 소감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서로 환경과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78 266 630 571"></td> <td data-bbox="630 266 1484 571"> <p>기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며 공유뿐만 아니라 반박도 해보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발히 의견을 나누는 게 이 북클럽 활동의 진정한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이 다섯 명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는데, 국내에는 그리고 전 세계에는 얼마나 더 다양한 의견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환경관련 문제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만 무성하고 실천이 잘 안되는 걸까?</p> </td> </tr> <tr> <td data-bbox="478 571 630 855">*우</td> <td data-bbox="630 571 1484 855"> <p>우리는 서론,본론,결론의 형태처럼 세 단계로 분할해 책의 난이도를 점차 높여가며 하나의 주제에 도달하는 것을 계획으로 세웠다. 당연히 세 단계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두 번째 단계, 즉 오늘 하는 활동이 가장 중요했다.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알차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조건을 잘 만족시켜준 책이라는 점이 아주 좋았던 것 같다.</p> </td> </tr> </table>		<p>기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며 공유뿐만 아니라 반박도 해보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발히 의견을 나누는 게 이 북클럽 활동의 진정한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이 다섯 명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는데, 국내에는 그리고 전 세계에는 얼마나 더 다양한 의견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환경관련 문제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만 무성하고 실천이 잘 안되는 걸까?</p>	*우	<p>우리는 서론,본론,결론의 형태처럼 세 단계로 분할해 책의 난이도를 점차 높여가며 하나의 주제에 도달하는 것을 계획으로 세웠다. 당연히 세 단계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두 번째 단계, 즉 오늘 하는 활동이 가장 중요했다.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알차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조건을 잘 만족시켜준 책이라는 점이 아주 좋았던 것 같다.</p>		
	<p>기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며 공유뿐만 아니라 반박도 해보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발히 의견을 나누는 게 이 북클럽 활동의 진정한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이 다섯 명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는데, 국내에는 그리고 전 세계에는 얼마나 더 다양한 의견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환경관련 문제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만 무성하고 실천이 잘 안되는 걸까?</p>						
*우	<p>우리는 서론,본론,결론의 형태처럼 세 단계로 분할해 책의 난이도를 점차 높여가며 하나의 주제에 도달하는 것을 계획으로 세웠다. 당연히 세 단계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두 번째 단계, 즉 오늘 하는 활동이 가장 중요했다.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알차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조건을 잘 만족시켜준 책이라는 점이 아주 좋았던 것 같다.</p>						
<p>실천 소감과 사진</p>	<p>한림 플로깅</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78 855 630 1451">지수</td> <td data-bbox="630 855 1484 1451"> <p>이런 실천은 나 혼자 하면 부끄럽고, 귀찮다는 이유로 하지도 않는다. 같이 할 사람이 있으니 겨우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집계를 받지 못해 장갑 낀 손으로 주워야 했지만, 다같이 재밌게 했다! 코스를 돌며 아닌 척 열정적으로 쓰레기를 찾아서 줍는 *우 오빠랑, 경사가 가파른 오르막길을 갈 때마다 지친 기색을 보이더니 결국 느릿느릿하게 걸어가던 *연이가 웃기고 귀여웠다.</p> <p>놀라웠던 것은, 쓰레기가 많이 없었다는 점이다. 환경미화원 분들이 학교 관리에 힘을 써주시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환경미화원 분들을 본 적이 아침 기숙사 외에는 없는데, 대체 언제 일하시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학생들이 쓰레기를 많이 안 버리는 걸까? 잘 모르겠다.</p> </td> </tr> <tr> <td data-bbox="478 1451 630 1825">*연</td> <td data-bbox="630 1451 1484 1825"> <p>플로깅.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한다는 뜻이다. 쓰레기 줍기 활동은 중학교 봉사활동 시간 이후로 처음이라서 조금은 감회가 새로웠다. 날이 아주 춥지는 않아서 학교 내부를 돌아다니며 5km를 움직이는 것은 수월했다. 의외로 학교 내에 쓰레기가 정말 없었는데, 이 깨끗함이 쓰레기를 관리하고 치우는 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지만 귀천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하대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은 날이었다.</p> </td> </tr> <tr> <td data-bbox="478 1825 630 1957">*은</td> <td data-bbox="630 1825 1484 1957"> <p>이 플로깅 활동도 내가 동기들에게 먼저 제안한 활동이었다. 지난 학기에 신청했지만, 미루고 미루다가 북클럽 활동을 계기로 플로깅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학교생활을 하다가 길가에</p> </td> </tr> </table>	지수	<p>이런 실천은 나 혼자 하면 부끄럽고, 귀찮다는 이유로 하지도 않는다. 같이 할 사람이 있으니 겨우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집계를 받지 못해 장갑 낀 손으로 주워야 했지만, 다같이 재밌게 했다! 코스를 돌며 아닌 척 열정적으로 쓰레기를 찾아서 줍는 *우 오빠랑, 경사가 가파른 오르막길을 갈 때마다 지친 기색을 보이더니 결국 느릿느릿하게 걸어가던 *연이가 웃기고 귀여웠다.</p> <p>놀라웠던 것은, 쓰레기가 많이 없었다는 점이다. 환경미화원 분들이 학교 관리에 힘을 써주시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환경미화원 분들을 본 적이 아침 기숙사 외에는 없는데, 대체 언제 일하시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학생들이 쓰레기를 많이 안 버리는 걸까? 잘 모르겠다.</p>	*연	<p>플로깅.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한다는 뜻이다. 쓰레기 줍기 활동은 중학교 봉사활동 시간 이후로 처음이라서 조금은 감회가 새로웠다. 날이 아주 춥지는 않아서 학교 내부를 돌아다니며 5km를 움직이는 것은 수월했다. 의외로 학교 내에 쓰레기가 정말 없었는데, 이 깨끗함이 쓰레기를 관리하고 치우는 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지만 귀천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하대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은 날이었다.</p>	*은	<p>이 플로깅 활동도 내가 동기들에게 먼저 제안한 활동이었다. 지난 학기에 신청했지만, 미루고 미루다가 북클럽 활동을 계기로 플로깅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학교생활을 하다가 길가에</p>
지수	<p>이런 실천은 나 혼자 하면 부끄럽고, 귀찮다는 이유로 하지도 않는다. 같이 할 사람이 있으니 겨우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집계를 받지 못해 장갑 낀 손으로 주워야 했지만, 다같이 재밌게 했다! 코스를 돌며 아닌 척 열정적으로 쓰레기를 찾아서 줍는 *우 오빠랑, 경사가 가파른 오르막길을 갈 때마다 지친 기색을 보이더니 결국 느릿느릿하게 걸어가던 *연이가 웃기고 귀여웠다.</p> <p>놀라웠던 것은, 쓰레기가 많이 없었다는 점이다. 환경미화원 분들이 학교 관리에 힘을 써주시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환경미화원 분들을 본 적이 아침 기숙사 외에는 없는데, 대체 언제 일하시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학생들이 쓰레기를 많이 안 버리는 걸까? 잘 모르겠다.</p>						
*연	<p>플로깅.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한다는 뜻이다. 쓰레기 줍기 활동은 중학교 봉사활동 시간 이후로 처음이라서 조금은 감회가 새로웠다. 날이 아주 춥지는 않아서 학교 내부를 돌아다니며 5km를 움직이는 것은 수월했다. 의외로 학교 내에 쓰레기가 정말 없었는데, 이 깨끗함이 쓰레기를 관리하고 치우는 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지만 귀천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하대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은 날이었다.</p>						
*은	<p>이 플로깅 활동도 내가 동기들에게 먼저 제안한 활동이었다. 지난 학기에 신청했지만, 미루고 미루다가 북클럽 활동을 계기로 플로깅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학교생활을 하다가 길가에</p>						

	<p>떨어진 쓰레기를 여러 주웠던 경험이 있다. 때문에 플로깅을 하기 전까지는 교내에 쓰레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던 모양이다. 우리가 교내의 거의 모든 공간을 돌아다니다 보았지만, 주운 쓰레기의 양은 각자의 봉투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정도였다. 교내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미화원 분들의 노고를 이제서야 나는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전까지 미화원 분들의 노고를 깨달지 못했다는 점에 깊은 반성을 하며, 과거의 나를 회고해보는 시건이 되었다.</p>
*연	<p>플로깅은 하기 전에 생각이 많았다. 날씨가 너무 춥진 않을까? 너무 늦게까지 진행되진 않을까? 우리가 주울 만큼의 쓰레기가 있을까? 등 여러 걱정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춥지도 않았고 딱 해가 저물어갈 때쯤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쓰레기가 간간히 발견되었기에 많은 양을 줍진 못했지만 오히려 많이 발견하지 못한 것에 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은 작은 시도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이런 활동들도 작은 시도이다. 이 시도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p>
*우	<p>플로깅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했던 보상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닐까싶다. 처음의 신청은 그렇게 단순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활동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플로깅을 하자고 마음 먹었을 때는 그 무게가 조금 더 느껴졌던 것 같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나라에 또는 지구 전체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전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쓰레기를 주우면서 다녔던 것 같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이 가벼워져서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었다.</p>



2023년 11월 7일

참가자대표: 강*수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3차)

북클럽 팀명	사(思)랑 해(海)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 장소 : CLC 1층									
참석자 명단	학번	2023****	이름	강*수	학번	2023****	이름	김*연		
	학번	2023****	이름	김*은	학번	2023****	이름	윤*우		
	학번	2023****	이름	이*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진행 도서] 해양오염과 지구환경 (강성현, 강동진. 한국해양연구원. 2013)</p> <p>책 선정 이유 북클럽의 최종목표인 '바다에 대한 보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바다와 관련된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저술한 책을 선정하여 바다가 얼마나 중요하고, 바다의 현 상황과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p> <p>중요 문구 및 키워드 마지막 개척의 장과 무한한 자원의 보고, 범지구적 사고</p> <p>책의 구성 전반부: 바다가 중요한 이유 중반부: 현재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후반부: 현재 제정된 해양법과 바다에 필요한 해결방안들</p> <p style="text-align: center;">-</p> <p>책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수</td> <td>나는 지식 습득을 위해 책을 읽을 때는 최신 책을 선정한다. 최근에 나온 책일수록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에 나온 이 책을 읽는다 하니 처음에는 불만족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옛날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서 읽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옛날 책을 읽어도 괜찮은 것 같다. 중요한 건 역시 옛날 책과 지금 책을 비교하면서 읽는 거겠지만.</td> </tr> </table>								*수	나는 지식 습득을 위해 책을 읽을 때는 최신 책을 선정한다. 최근에 나온 책일수록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에 나온 이 책을 읽는다 하니 처음에는 불만족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옛날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서 읽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옛날 책을 읽어도 괜찮은 것 같다. 중요한 건 역시 옛날 책과 지금 책을 비교하면서 읽는 거겠지만.
*수	나는 지식 습득을 위해 책을 읽을 때는 최신 책을 선정한다. 최근에 나온 책일수록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에 나온 이 책을 읽는다 하니 처음에는 불만족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옛날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서 읽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옛날 책을 읽어도 괜찮은 것 같다. 중요한 건 역시 옛날 책과 지금 책을 비교하면서 읽는 거겠지만.									

*연	KIOST에서 만든 책이라 그런지 이과적 성향이 짙은 책이다. 화학식과 그래프가 많이 나온다. 그만큼 책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한다.
*은	<p>우리는 KIOST의 연구원과 같은 전문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문장으로 쓰여져 있다. 어려운 내용일수록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쓰는 것이 어렵다고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굉장히 잘 쓰인 책이라고 생각했다.</p> <p>개인적으로 책을 고를 때에는 목차부터 확인하는 편인데, 이 책도 마찬가지였다. 목차가 굉장히 세세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 이 책을 선정했다.</p> <p>+ 책 읽는 방법: 목차를 보면 여러 챕터와 소제목이 붙여져 있다. 그 소제목들을 확인하며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며 상상한 뒤 실제 책을 읽을 때는 그 추측과 비교하면서 읽는다. 예상과 실제 내용이 비슷할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교하며 읽어도 꽤 재미있다.</p>
*연	표지에 적힌 카이스트는 우리에게 신뢰도 줬지만 시련도 주지 않았다.. 그래도 역시 신뢰의 카이스트. 일반 독자들이 포기하지 않게 여러 당근을 주었다. 마지막 단계에 걸맞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책에서 대두한 문제를 더 환경과학적으로 분석 및 서술함으로써 더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가능했다. 마무리까지 용두용미인 것 같아 만족스럽다.
*우	약간 전문적인 용어나 지구과학적인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 이해하는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프와 사진 자료가 많은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풍부한 자료 덕분에 어려운 내용이 쓰여진 책임에도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고, 직접 갈 수 없는 실제 현장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다.
책에 대한 토의	
*우	이산화탄소라 함은 되게 부정적인 단어의 느낌이 나는데,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그 식물이 다시 이산화 탄소 배출을 막는다는 이 인과관계가 굉장히 특이해서 기억이 남았던 것 같다.
*수	사실 저번 책에서 이산화탄소가 왜 해양산성화를 일으키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책에 이와 관련된 화학식이 나왔다. $CO_2 + H_2O \rightarrow H_2CO_3$ 라고. 즉 이산화탄소가 물과 결합하여 탄산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변화한 해양이 탄산칼슘의 골격을 가진 해양

	<p>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바다 생태계 문제와 관련된 칼럼이나 뉴스를 볼 때 산호초와 관련된 글이 많이 보였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었음을 깨달았다. 또한 해양산성화가 저주파 음파 흡수율을 낮추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다.</p>
*은	<p>쓰레기와 수산물 등 이전에 읽었던 책과 겹치는 부분보다는, 이번 책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 위주로 읽었다.</p> <p>에어로졸 내용이 나와서 흥미로웠다. 에어로졸은 원래 개념만 알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책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좋았다.</p>
*수	<p>에어로졸이 스모그, 먼지 등등을 포괄하는 단어인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안 좋은 영향만 미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에어로졸이 햇빛을 차단하면서 지구 온도를 낮추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적힌 것을 보고, 모든 건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방사능도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지만, 해양을 조사하기에 또 좋은 물질 중 하나라는 것도 놀라웠다.</p>
*연	<p>현재 우리가 대중적으로 먹고 있는 생선은 고등어, 멸치와 같은 생선들인데 먼 미래에는 그러한 생선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아열대성 어종이 우리 밥상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p>
*은	<p>궁금한 게 있다. 책에서 새로운 어종이 출범한다는 소리는 원래 있던 어종이 진화해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그동안 발견된 적도 없는 종이 탄생해서 나타나는 것일까.</p>
*우	<p>적도 부근에 있던 물고기가 점점 해양이 따뜻해지니 다른 지역의 해양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원래 특정 생선이 나오지 않던 지역에서 특정 생선이 잡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해에서 나비고기가 잡히는 것처럼.</p>
*연	<p>완전히 새로운 생물이 등장하기에는 아직 생물이 새로운 진화를 거듭할 정도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 같다.</p>
*연	<p>우리나라 동물성 단백질 40%가 수산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놀라웠다. 수산물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p>
*수	<p>집이 외가쪽인데, 지금 내가 외가랑 같이 살고 있다. 외가가 원래 있던 곳이 바다와 근접한 곳인데 그 때문인지 외가 사람들은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집에서도 생선을 많이 먹는 편이다. 그런데 기존에 먹던 물고기가 사라지고 새로운 어종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집 식탁도 많이 바뀔 것 같다. 무섭다.</p>
*은	<p>적조도 인상깊었다. 적조는 그저 바다가 빨갭게 변하는 현상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물고기들의 먹이가 많아지는 것이니 막연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다양한 자료가 있어서 좋았다.</p>

10년 전과 지금은 달라졌는가: 실천의 실태

*수	이 책을 최종적으로 수정한 년도를 확인했다. 2012년에 최종적으로 수정된 책이었다. 그런데 내용만 보면 23년에 만들어진 책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다. 그만큼 과거의 해양문제와 지금의 해양문제가 일치한다. 과거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연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를 지켜보기에는 짧은 시간인 것은 아닐까. 인류가 그동안 저지른 과오에 비해 10년은 환경을 지키고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조금’ 한다고 바로 눈에 보이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
*연	모두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양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든다. 그러므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도 실행을 하지 않는다.
*은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전세계가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여러 국가가 자금을 모아서 오대양의 문제를 한 구역씩 해결할 수는 없는 걸까.
*우	모든 국가가 ‘먼저 돈을 쓰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게다가 지금의 선진국은 그동안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발전을 하면서 현재에는 어느 정도 산업적 안정기에 접어들고 부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개도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파괴를 비판삼아 성장한) 선진국들이 “이제 환경을 지키자”고 주장하니 개도국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국가적 실천이 이행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연	읽으면 읽을수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이 느껴져서 ‘우리 정말 망한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다. 바다는 정말 중요한 생태계인데도 계속해서 오염이 되고 있고 그것이 심해져 바다 한가운데에는 쓰레기까지 모여 있는 상태인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책에 적혀 있었다.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것 같다.
*수	‘쓰레기에 대한 모든 것’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로 기억한다. 어떤 청소년이 해양 쓰레기 투기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한 이후 창업을 해서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회사를 만든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점점 더 사람들의 인식이 넓어지고 전체적으로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눈에 띄는 변화가 현저히 적을 뿐이다.
*연	그런데 바다쓰레기를 없애는 과정-해양 쓰레기를 회수하기 위해 배를 타고,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	그런 지점에서 드는 생각이 있다. 이런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개개인이 있기에 아주 미약한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지만, 정부나 전세계가 모여서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가시화되지 않을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문제가 더 크다.
*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한 플로깅도 지구 자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밖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와서 줍는 거지만, 지구 입장에서 그 쓰레기는 어디 있든 동일하지 않은가.
*우	실제로 중요한 건 쓰레기를 종류 별로 분리하고 처리하는 과정도 중요하긴 하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플로깅 활동이 전혀 도움이 안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주체이고, 게다가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미적인 수치를 남길만큼의 활동을 하지는 못한다. 그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지구에 도움이 된다면 플로깅 등의 실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은	우리는 환경보호라는 명목하에 플로깅이라는 실천을 한 것이었지만, 플로깅의 목적은 환경보호가 아닌 미화 작업으로 변질되어버렸다고 본다. 그저 사람 눈에 좋게 보이는 걸 환경에도 좋다고 포장한 것 아닐까.
*연	책에서는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의 감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방향 삼아서 쓰레기가 바다까지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떤가.
*연	언제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 인식하고, 그 인식에서 그친다. 실천까지 나아가고 싶다. 그런데 이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환경문제가 발생한 규모가 너무 크고, 문제에 기여를 하는 결정적 원인은 일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속 중인 체제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수	책에서는 바다를 향한 개발 요구와 환경 보존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지, 애초에 이를 수는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개발하지 말라고는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연	중도를 유지하는 것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다. 유지가 어렵다. 그렇다고 이러한 원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 의 가정도 불가능한 것이,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 오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플라스틱이 굉장히 편리한 만큼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설령 플라스틱이 개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과 유용성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비슷한 물질을 개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활동 사진



활동 소감문

*수

아, 이 날... 정말 바빴다. 정말... 정말 바쁜 날이었다. 수업 듣자마자 학과 공모전 촬영하고 간담회 가고 잠깐 저녁 먹었다가 동아리에서 대외 공모전 회의하고 애들 기다리면서 다음날까지 제출인 과제했다가 복클럽하고...

그렇지만 놀랍게도! 복클럽 할 때 많이 피곤하지 않았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진행되는 복클럽이기 때문에 압박이 주어지지 않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제일 좋았던 점은 모두가 이 활동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던 점이다. 누구 하나라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 힘이 빠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 점이 무척 기쁘고 다행스러웠다. 활동 중간중간마다 다른 이야기로 새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건 그것 나름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복클럽이라는 명분으로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동기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어 좋다.

조금 재밌었던 것은, 이번 활동에서 읽어야 했던 책이 웬만한 도서관에도 없고, 인터넷에서 구매하기도 어려웠던 까닭에 내가 산 책을 한 명 빼고 돌려 읽었던 것이다. 그게 재밌었다.

*연

3회차 활동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었다.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고 드디어 '해양환경'이라는 세부적인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알팍한 지식들로 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 정도로 이 책은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 중 왜곡된 부분, 그리고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지식들을 수정하고 충당해주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바다는 전지구적 환경, 기후 조절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다 오염의 심각성과 그 소중함을 더 깊게 새길 수 있었다.

*은

3회차 활동은 내가 추천한 도서인 '해양오염과 지구환경'으로 활동했다. 우리 복클럽의 주제 선정 이유와 가장 직결되는 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

	<p>다. 다양한 사진자료와 친절한 부가설명으로,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다. 3회차 활동도서인 ‘해양오염과 지구환경’은 학교 도서관이나 국립 도서관에도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구매하였다. 대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일까? 두 권의 책을 5명이 돌려가며 읽었던 점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다! 북클럽 활동소감에 이런 현실적인 북클럽 활동 이야기를 담아보는 것도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지 않은가?</p> <p>*연 사실 이 책을 끝까지 읽지는 못했다. 책을 다 돌려가며 읽은 탓에 책의 두께에 비해 소장 기간이 짧아 전체적 내용 파악보다는 목차를 통해 다른 책과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읽었는데 좋은 생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나중에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으니 더 수월했던 것 같기도 하다. 의견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동기들은 뭐라고 말을 덧붙일까?라는 궁금증도 몇 번 들었던다. 나의 기대에 맞게 역시 이번 회차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너무 좋았다.</p> <p>*우 이 책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 본가 주변에 있는 국립 도서관과 근처 서점에서는 이 책이 소장되어 있거나 판매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친구의 책을 모두가 한 번씩은 돌려봤던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다. 북클럽의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아쉽다고 이 회차를 통해 느끼게 되었는데 보통 팀원이 적어도 4명 정도는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같은 책이 4권 이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다. 도서관의 대출기한을 늘려 미리 빌려서 돌려 읽을 수 있게 만들거나 소정의 책값이 북클럽 조에게 부여된다면 원활한 북클럽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p>
<p>기타 소감문</p>	<p>북클럽 간담회</p> <p>주된 의견: 다른 조들은 어떤 주제로, 어떤 책을 읽으며, 학기 동안 어떤 방식으로 북클럽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여서 생각보다 좋았다. 다른 팀 북클럽도 재밌어 보였다.</p> <p>동시에 다른 북클럽을 보고 나니 우리 북클럽 활동에 더 애착이 갔다. 책 선정부터 책 읽는 순서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고민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다.</p> <p>*수 1학기 때도 북클럽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북클럽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긴장감 없이 북클럽을 진행했는</p>

	<p>데, 간담회가 있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었다. 오랜만에 교수님을 볼 수 있기도 했고, OT 때 흥미로운 주제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팀의 활동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다른 팀도 북클럽 주제를 굉장히 고심해서 정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책과 토론에 대한 열의가 강한 사람들이 모인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p> <p>다만 북클럽인 만큼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다는 의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각 팀의 북클럽 주제를 중심으로만 피력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는 적었던 것 같아 아쉬웠다.</p>
*연	<p>다른 팀들의 진행 현황과 다양한 주제, 그리고 비교를 통해 우리 팀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던 시간이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의견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 그만큼 이번 간담회 자리가 귀중했고, 감사했다.</p>
*은	<p>우리가 활동 중인 심비우스 북클럽 20기 이전에는 없었던 활동이라고 알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른 팀들은 어떤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진행과정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간담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팀은 ‘5평 원룸 당사자모임’이었다. 자취를 하고 있는 본인들의 상황에서 나아가 주거와 부동산의 문제를 다루는 점이 직관적이면서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다음에도 간담회가 있다면 참여해서, 다른 팀들의 이야기를 짧게라도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p>
*연	<p>지금까지 우리 조의 활동만 우리끼리 하면서 진행했다면 이번 간담회 참석으로 인해 시선을 더 넓혀 다른 조의 활동들과 진행 절차, 함께 읽는 책을 알 수 있었다.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거론되었고 이를 통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폭도 더 넓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 조의 진행 속도와 보완할 점도 확인할 수 있어서 얻어가는 게 많은 간담회였다고 생각한다.</p>
*우	<p>이번 시즌에 북클럽을 처음하게 되었고, 어찌다 보니 간담회에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 우리 조의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조들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주제는 무엇인지, 무슨 책을 읽는지 등을 알 수 있어서 좋았지만, 발표 시간을 짧게 가져가서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에는 조금 적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또한 모든 조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의 조들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남은 조들도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했다.</p>

2023년 11월 14일

참가자대표: 강*수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4차)

북클럽 팀명	사(思)랑 해(海)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장소 : 도서관 4층 C.Square									
참석자 명단	학번	2023****	이름	강*수	학번	2023****	이름	김*연		
	학번	2023****	이름	김*은	학번	2023****	이름	윤*우		
	학번	2023****	이름	이*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진행 활동]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 감상</p> <p>다큐멘터리 선정 이유 북클럽 활동을 단순히 책을 읽는 수준에서 끝마치는 것은 아쉬운 경과라 여겼다. 따라서 주제에 가장 적합한 다큐멘터리를 선정한 뒤 현 해양환경과 어업의 실태에 대해 심화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p> <p>중요 문구와 키워드 바다가 죽으면 지구도 죽는다. 부수어획에 우연은 없다. 지속 가능한 어업은 없다.</p> <p>간단한 줄거리 전반부: 해양생태계의 현 실태와 문제 중반부: 부수어획으로 죽어가는 어류와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포장한 불법어업의 산물 후반부: 옹서버들의 매수와 실종, 어업에서의 강제노역</p> <p style="text-align: center;">-</p> <p>전체적인 감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수</td> <td>씨스피라시는 해양생태계의 심각성과 환경보호 단체로 위장하여 수익을 벌어들이는 현 어업의 실태를 낱알이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이다.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감상은 놀라움, 그 이후에는 충격과 경악이었고, 마지막에는 고민이었다. 일본의 다이지 돌고래 몰이 사냥의 경우, 이전에 한번 논란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알</td> </tr> </table>								*수	씨스피라시는 해양생태계의 심각성과 환경보호 단체로 위장하여 수익을 벌어들이는 현 어업의 실태를 낱알이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이다.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감상은 놀라움, 그 이후에는 충격과 경악이었고, 마지막에는 고민이었다. 일본의 다이지 돌고래 몰이 사냥의 경우, 이전에 한번 논란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알
*수	씨스피라시는 해양생태계의 심각성과 환경보호 단체로 위장하여 수익을 벌어들이는 현 어업의 실태를 낱알이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이다.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감상은 놀라움, 그 이후에는 충격과 경악이었고, 마지막에는 고민이었다. 일본의 다이지 돌고래 몰이 사냥의 경우, 이전에 한번 논란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알									


	<p>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왜 돌고래를 죽이는데 대한 이해 관계는 알지 못했다. 참치 산업을 위해 돌고래를 ‘유해 어류’로 지정하여 사냥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또한 어업이 인신매매나 납치를 통해 인력을 구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았다. 그러나 베트남과 태국 같은 나라에도 그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까지는 알지 못했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은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p> <p>이 모든 정보를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수집하고,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정보를 한 개인이 어떻게 얻었느냐도 놀라운 점이지만 가장 경이로운 점은 역시 그 실행력일 것이다.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 현 사태를 알리고, 환경오염에 기여하는 원흉들을 찾아가 그만두라고 말하는 데에는 상당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는 아마 감독이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수많은 환경운동가가 죽었고, 실종으로 처리됐다. 그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다큐가 나왔다. 누군가는 이를 알리는 데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내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말이다. 나는 현재뿐만 아니라 몇 십 년의 미래까지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나 역시 도움이 되고자 한다.</p> <p>*연</p> <p>씨스피라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을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전부 바다 오염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다. 지금까지 환경에 관한 책을 읽으며 환경 오염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았고 특히 마지막 책인 해양오염과 지구환경이라는 책을 읽으며 환경 오염의 50퍼센트는 전부 바다 오염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다.</p> <p>특히 바다를 더럽히는 대부분의 오염이 수산 산업에서 나온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다. 지금껏 나는 해양 관광지에서 나오는 무분별한 해변 쓰레기가 대양 한 가운데로 몰려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주된 해양 오염 원인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 내에서 살고 있는 먹이사슬의 균형이 기후 변화와 그로부터 이어지는 환경 문제를 제어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양식 사업과 상어 잡이, 그리고 포경이 해양 먹이사슬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도 돌아온다.</p> <p>또한 이것은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닌,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불법적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착취당하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법 어업에 매여있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다. 21세기에 거의 짐승 취급을 받으며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노예처럼 부려지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내가</p>
--	---

	<p>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의 모습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p> <p>플라스틱 쓰레기는 점차 우리 일상에서 감소하려는 노력이 일상 생활에까지 드러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은</p>	<p>‘씨스피라시’를 보면서 느낀 점은 가히 충격이었다. 우리는 앞서 세 권에 책을 읽으면서 해양쓰레기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과 우리의 실천 방안 등을 탐구해왔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어업’을 해양오염의 가장 큰 주적이라고 설명한다. 어업이 해양을 오염시킬 거라는 생각은 이 다큐멘터를 알기 전까지 단 1%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어업으로 인해 특정 물고기 개체 수가 급감하게 되고, 결국 99%의 개체 수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내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다.</p> <p>이익을 위해 우리는 바다를 망치고 있다. 그놈의 돈이 뭐길래, 우리는 이렇게까지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시사점은 현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래에도 적용될 문제점이며, 환경에서 더 나아가 세계 전반적인 부분에게 적용되어질 것이다.</p> <p>해양환경과 얽히고 설킨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가며 이를 탐구하고, 발전하기 위해 많은 사고와 노력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연</p>	<p>앞서 세 권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바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환경 오염들에 대해 날 것 그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리고 단체가 이 바다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 또한 여실히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책과는 다르게 영상으로 마주하게 되니 또 다른 느낌이었다. 훨씬 더 심각성이 체감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심각성을 알고있음에도 묵인하는 여러 사람들과 기관들에 너무 화가 났다. 현재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다에 버려버리는 그들은 대체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됐고 지금 이렇게 벌여봤자 나중에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결국 환경 파괴의 끝에 다다르면 자기들도 더 이상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인데도 말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우</p>	<p>세 번째 책인 ‘해양오염과 지구환경’의 도입부에는 수산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수산업과 해양오염이 큰 관계가 있나 싶었다. 그러나 씨스피라시를 보며 그 책에 왜 수산업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적어도 해양환경을</p>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 잡아들이는 물고기 때문에 어느 개체수는 99%이상 멸종되었다는 수치를 통해 굉장한 경각심을 가졌던 것 같다. 나도 생선을 그렇게 즐겨 먹진 않지만, 물고기에 대한 소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인상 깊었던 내용

<p>*수</p>	<p>다큐멘터리 후반부에 감독은 페로 제도의 포경꾼을 찾아가 인터뷰를 한다. 포경꾼은 말한다. “닭 2천 마리를 죽이느니 고래 1마리를 죽이겠어요. (...) 세상이 목숨 2천 개를 앗아갈 때 우린 1개를 앗아가니, 고마운 거죠.”</p> <p>생명을 저울질 할 수는 없지만, 이는 내가 환경을, 바다를 지키고자 한다면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였다. 감독도, 나도,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꼈다. 원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 고기를 먹어본 경험이 있고, 그 경험 안에는 물고기 또한 존재한다. 나는 연어를 좋아하고, 현재 연어 산업 또한 부패되어 있다. 채식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우리는 누군가에게 ‘바다를 지켜라’라며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결백하지 않다. 권리는 있으나 자격은 없다. 생각해보면, 채식의 단계에서 ‘무언가를 금지하는’ 가장 낮은 단계가 육식 금지(페스코 베지테리언), 그 다음 단계가 어류 금지(락토 베지테리언)이다. 육지 동물 다음으로 해양 동물이 금지되는 것이다. 보통 이러한 순서는 심각성을 기준으로 정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둘 중 무엇을 (상대적으로) 지양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나는 질문을 얻었고, 이제부터 그 답을 고민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p>
<p>*연</p>	<p>여태껏 내가 환경에 대해 정말 무지하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된 활동. 임팩트가 강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지만 그 중 가장 충격적이고 기억에 남는 장면은 실시간으로 포경을 하는 장면이다. 고래들을 해안가로 몰아가 죽창을 찔러넣고 단숨에 몇십 마리를 죽이는 과정에서 고래들의 피로 바다가 아주 새빨갳게 물들어, 말 그대로 피바다가 된 장면은 너무나 잔인하고 안타깝워 눈가가 덜덜 떨릴 정도였다.</p>
<p>*은</p>	<p>해양환경을 보전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해양단체에서 플라스틱 빨대 이야기만 하는 것은 정말로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오염의 주원인이라서가 아니라, ‘어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단체와 뒷거래를 통해 서로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은 굉장한 배신감이 들 정도였다.</p> <p>해양보전단체에서는 무슨 이유로 이들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일까? 이들도 어업단체와 마찬가지로 ‘이득’을 위해 협업하고 있는</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78 268 638 313"></td> <td data-bbox="638 268 1482 313">것이 아닌가?</td> </tr> <tr> <td data-bbox="478 313 638 604">*연</td> <td data-bbox="638 313 1482 604">다큐멘터리의 전반을 이끌고 가는 피디이자 출연자의 의지가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한다. 정말 각국을 다니며 개인이 기업과 단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여러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최대한 문제에 가까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어느 하나 쉬운 과정이 없었기에 중간에 포기할 법도 하지만 끝까지 여정을 마쳤다는 게 박수쳐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있기에 환경 문제의 실상과 민낯을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 같다.</td> </tr> <tr> <td data-bbox="478 604 638 846">*우</td> <td data-bbox="638 604 1482 846">포경 산업이 아직도 이루어진다는 것에 매우 놀랐고 우리나라를 비로한 모든 나라에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의 식탐 때문에 감소된 개체 수를 객관적인 통계로 지켜보니 매우 부정적이라서 인상 깊었던 것 같다.</td> </tr> </table>		것이 아닌가?	*연	다큐멘터리의 전반을 이끌고 가는 피디이자 출연자의 의지가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한다. 정말 각국을 다니며 개인이 기업과 단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여러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최대한 문제에 가까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어느 하나 쉬운 과정이 없었기에 중간에 포기할 법도 하지만 끝까지 여정을 마쳤다는 게 박수쳐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있기에 환경 문제의 실상과 민낯을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 같다.	*우	포경 산업이 아직도 이루어진다는 것에 매우 놀랐고 우리나라를 비로한 모든 나라에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의 식탐 때문에 감소된 개체 수를 객관적인 통계로 지켜보니 매우 부정적이라서 인상 깊었던 것 같다.
	것이 아닌가?						
*연	다큐멘터리의 전반을 이끌고 가는 피디이자 출연자의 의지가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한다. 정말 각국을 다니며 개인이 기업과 단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여러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최대한 문제에 가까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어느 하나 쉬운 과정이 없었기에 중간에 포기할 법도 하지만 끝까지 여정을 마쳤다는 게 박수쳐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있기에 환경 문제의 실상과 민낯을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 같다.						
*우	포경 산업이 아직도 이루어진다는 것에 매우 놀랐고 우리나라를 비로한 모든 나라에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의 식탐 때문에 감소된 개체 수를 객관적인 통계로 지켜보니 매우 부정적이라서 인상 깊었던 것 같다.						
<p style="text-align: center;">활동 사진</p>							
<p style="text-align: center;">활동 소감문</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78 1267 638 1910">*수</td> <td data-bbox="638 1267 1482 1910"> <p>나도 씨스퀘어의 옐로우 방에서 TV 시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도서관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저런 방도 있구나~’ 하는 감상만 가졌을 뿐이지, 내가 직접 사용할 이유는 없었고 어떻게 대여할 수 있는지조차 몰랐다. 당일 도서관에서 근로하시던 선배의 도움을 받아 대여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무사히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 감사한 일이다.</p> <p>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책과 영상은 많이 다름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책은 정보를 상대적으로 깊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읽을 수 있다. 반면 영상은 생생하고 전달력이 좋은데다가 감각적으로 와닿는 수준이 달랐다. 두 매체를 전부 접해보니, 책은 이론적인 측면을, 영상은 실제적인 측면을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시킨다고 느꼈다. 아마 이 다큐멘터리를 북클럽 시작할 때에 접했으면 이정도로 깊게 느끼진 못했을 것이다. 지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p> </td> </tr> <tr> <td data-bbox="478 1910 638 1998">*연</td> <td data-bbox="638 1910 1482 1998">씨스퀘어에 이렇게 ott를 볼 수 있는 전용 방이 따로 있는지는 몰랐다. 팀원들과 다함께 옹기종기 모여 앉아 볼을 끄고 다큐멘</td> </tr> </table>	*수	<p>나도 씨스퀘어의 옐로우 방에서 TV 시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도서관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저런 방도 있구나~’ 하는 감상만 가졌을 뿐이지, 내가 직접 사용할 이유는 없었고 어떻게 대여할 수 있는지조차 몰랐다. 당일 도서관에서 근로하시던 선배의 도움을 받아 대여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무사히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 감사한 일이다.</p> <p>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책과 영상은 많이 다름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책은 정보를 상대적으로 깊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읽을 수 있다. 반면 영상은 생생하고 전달력이 좋은데다가 감각적으로 와닿는 수준이 달랐다. 두 매체를 전부 접해보니, 책은 이론적인 측면을, 영상은 실제적인 측면을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시킨다고 느꼈다. 아마 이 다큐멘터리를 북클럽 시작할 때에 접했으면 이정도로 깊게 느끼진 못했을 것이다. 지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p>	*연	씨스퀘어에 이렇게 ott를 볼 수 있는 전용 방이 따로 있는지는 몰랐다. 팀원들과 다함께 옹기종기 모여 앉아 볼을 끄고 다큐멘		
*수	<p>나도 씨스퀘어의 옐로우 방에서 TV 시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도서관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저런 방도 있구나~’ 하는 감상만 가졌을 뿐이지, 내가 직접 사용할 이유는 없었고 어떻게 대여할 수 있는지조차 몰랐다. 당일 도서관에서 근로하시던 선배의 도움을 받아 대여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무사히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 감사한 일이다.</p> <p>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책과 영상은 많이 다름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책은 정보를 상대적으로 깊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읽을 수 있다. 반면 영상은 생생하고 전달력이 좋은데다가 감각적으로 와닿는 수준이 달랐다. 두 매체를 전부 접해보니, 책은 이론적인 측면을, 영상은 실제적인 측면을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시킨다고 느꼈다. 아마 이 다큐멘터리를 북클럽 시작할 때에 접했으면 이정도로 깊게 느끼진 못했을 것이다. 지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p>						
*연	씨스퀘어에 이렇게 ott를 볼 수 있는 전용 방이 따로 있는지는 몰랐다. 팀원들과 다함께 옹기종기 모여 앉아 볼을 끄고 다큐멘						

	<p>터리를 감상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이색적이었고 즐거웠다. 해양에 관련된 다큐인 만큼 3회차 활동에서 해양 환경에 대한 책을 읽고 어느 정도 지식을 쌓은 상태에서 감상했기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p>
*은	<p>지금까지 씨스퀘어 공간을 정말 많이 와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내가 몰랐던 미지의 공간인 옐로우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학교에 ott, dvd를 시청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이 신기하게 느껴졌으며, 우리의 4회차 활동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든든하게 밥을 먹은 뒤에 따뜻한 공간에서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더니, 조금은 졸렸지만 그래도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었고, 이또한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시간이었다.</p>
*연	<p>책과는 또 다르게 생동감 넘치는 느낌으로 가득했던 이번 활동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북클럽 활동을 하면서 접했던 자료들 중 가장 최근 자료임을 통해 과거와 책이 출간된 시점,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가 개봉했을 시점을 모두 비교해볼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로웠다.</p>
*우	<p>C Square에 있는 Honey Yellow 방에서 TV에 OTT 계정을 입력해서 처음 시청하게 되었는데 화질도 좋았고 소리도 잘 들려서 좋았다. 하지만 5명이 앉기에는 공간이 조금 좁은 느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C Square 안에서도 제일 안쪽 구석탱이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우분들이 잘 모를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되게 좋은 공간인데 항상 비어있는 모습을 많이 봐서 매우 안타까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학우분들이 C Square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p>

2023년 11월 21일

참가자대표: 강*수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5차)

북클럽 팀명	사(思)랑 해(海)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1월 27일(월요일) / 장 소 : 도서관 4층 C.Square							
참석자 명단	학번	2023****	이름	강*수	학번	2023****	이름	김*연
	학번	2023****	이름	김*은	학번	2023****	이름	윤*우
	학번	2023****	이름	이*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진행 도서] 최종 마무리							
	북클럽 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 또는 활동 내용							
	*수	<p>인상깊었던 것들은 이미 회차마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책과 관련하여 쓸 말은 없다. 대신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있다. 우리 북클럽 활동 계획서에는 춘천의 제로웨이스트점 ‘요선당’ 탐방이 적혀 있다. 그런데 먼저 요선당을 간 친구들이 요선당이 폐업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요선당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제로웨이스트점인데다가 춘천 최초의 제로웨이스트점이라서 선정한 거였는데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의문이 들었다. “왜 사라졌을까?” 육림고개가 실패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였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무관심해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가? 가보지 않았기에 알 수 없었다. 대신 주말에 본가로 돌아갔을 때 연남동에 있는 지구샵 제로웨이스트홈 가게를 다녀왔다. 그것을 보며 생각했던 것은, 지방의 시민들이 일상 중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다는 것. 나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이런 분야에서도 일어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동시에 내가 수도권에서 19년 가량을 머물렀기 때문에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지도 못했다. 지금이야 춘천에 요선당 외에도 에너지카페 ‘사과나무’, ‘러스틱실레’ 등이 있다는 걸 알지만, 둘 다 우리 학교와는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해있다. 일반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환경보호라고 생각했고, 그를 위해서는 이러한 가게들이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으나, 나의 이상적인 결론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이 요선당 폐업 소식이 안타깝</p>						

	고, 아쉬웠다.
*연	2회차와 4회차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금까지 읽은 환경 관련 도서 중, 2회차 도서인 <위기의 지구, 물러설 곳 없는 인간> 은 특히 환경에 관한 기초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할 만큼 인상 깊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대중적이면서도 확실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4회차 씨스피라시 감상은 그동안 읽은 환경에 대한 책들을 기본 지식 삼아 해양의 현 사태를 보여주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이를 통해 해양 오염을 늦출 수 있는 개개인의 관심과 실천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고, 바다에 대한 애뜻함이 더 커지게 되었다.
*은	나는 3회차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내가 선정했던 도서이기도 하고, 도서명부터 끌리기도 하였다. 활동했던 도서중 내게 있어서 가장 내용이 어려웠던 책이다. 그만큼 새롭게 알게 된 점도 가장 많았던 도서였다. 나는 도서를 선정하거나 읽기를 시작할 때, 시각자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다.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시각자료(사진이나 동영상 등)와 친절한 부연설명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책의 내용을 100%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이 책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는다고 하더라도, 집필하신 카이스트 교수님들의 발끝에도 닿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100% 전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도서의 단 10%만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그마한 부분에 있어서도 얻어갈 수 있다는 점이 나에게 굉장한 메리트가 다가왔다. 책을 통해 얻은 점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해준 도서이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3회차로 꼽아보았다.
*연	나는 1회차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1회기를 진행하면서 읽었던 책이 <쓰레기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은 사실 내가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때 발표를 진행하면서 처음 읽었던 책이었다. 그 활동을 진행하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을 정도로 나에게 인상이 깊었어서 추천을 하게 되었고 북클럽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같은 책이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활동을 진행한다는 게 기대됐고, 나의 기대에 맞게 같은 책으로도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게 재밌었다. 나에게 환경 문제라는 거대한 이 눈덩이가 크기는 커도 너무 무겁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고마운 책인 것 같다.
*우	씨스피라시를 함께 봤던 4회차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3회차 때 읽었던 책에서 이해가 안됐던 부분이 4회차 씨스피라시 동영상을 보며 해결되는 것도 한 몫했었다. 또한 회차의 방식 자체가 특이

하기도 했는데, 책을 읽고 우리끼리의 생각이나 책에 적힌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장소에 모여 함께 OTT를 감상했던게 색다른 경험이었다. 책이라는 정적인 물체만 활용하다가 직접 움직이고 소리까지 나오는 생생한 TV를 활용해서 좋았다.

자신이 북클럽 활동기간 동안 했던 실천과 고민

*수	<p>환경 관련 동아리에서 이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북클럽 활동과 연계를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연합동아리에서 이번에 '지구방법대'라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제로 이행했다. 학교 플로깅을 하고 다니면서 테이크아웃 컵 무단투기가 자주 발견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키크보드 주차가 어떤 식으로 잘못되어 있으며 어디에 키크보드 주차장이 더 설치될 필요가 있는지,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필요한 장소는 어디고, 밤늦게까지 소등이 안 되어 있는 강의실은 어디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나 혼자였다면 놓치기 십상이었을 문제도, 나보다 더 환경문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지적해주어서 원활히 순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p> <p>또한 연합동아리에서 제안해준 덕분에 석사천 재즈페스타에서 춘천E컵 홍보 알바를 했고, 강원Univ. SDGs 페스타에서 뱅쇼 판매&춘천E컵 홍보 부스를 담당할 수 있었다. 참여하는 일반 학생들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고, 설문지도 100장 넘게 받아서 기뻐다. 다만 강원대의 캠퍼스가 너무 큰 탓에 사람들이 집약적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웠다. 한림대 CLC 앞에서 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라는 이야기를 페스타 끝나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나 역시 동의한다. 우리 학교 역시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기후융합전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전체의 상황을 보면, 우리 학교는 환경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p> <p>하지만 학생들의 인식은 확실히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분리수거의 필요성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고, 경영대에서 운영한 축제(추정.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에서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키링을 나눠주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더 나아가고 있다고 느낀다. 기후우울증이 오지 않아서 다행이다.</p>
*연	<p>교내 플로깅 활동을 했지만 아주 미약한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여러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환경미화원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곳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유지하는 작업을 한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먹고 버리는 쓰레기들이고, 그만큼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종류의 쓰레기라고 자연히 생각해왔다. 당장 우리의 눈</p>

	<p>앞에 놓여 있는 것, 매체에서 문제라고 제기되는 것들은 주로 일상적인 쓰레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4회차 활동까지 마치고 난 뒤 알게 된 것은, 정작 우리가 잘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가득한 바다가 생명의 장이며 지구의 순환과 조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대중들에게 원활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어업은 여러 자본들과 얽혀있는 만큼 불매를 촉구하기 어려운데, 간접적으로나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발적으로 어류 구매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또,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자연스럽게 어류의 소비가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향으로 돌고래 사냥 또는 포경이 줄어들 수 있을까?</p>
*은	<p>내가 북클럽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실천을 해보았는지 굉장히 깊게 고심해보았다.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었던 듯하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실천이며, 곧 고민이기도 하다. 해양환경과 연관성이 있어보이지 않는 일이더라도 그 길을 타고 따라가 보다보면 결국 연관성이 있음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생각해보았다. 나는 어떤 활동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가. 우선 나는 생선을 자주 먹지 않는다. 내가 생선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4회차 다큐멘터리 시청이후로 어업의 심각성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를 조금이나마 실천해보고자 하여, 4회차 활동 이후로 생선을 최대한 먹지 않으리라 노력했다. 이뿐만 아니라 빨대 사용을 대폭 줄였으며,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보다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p> <p>사실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일을 벌이는 일은 해양오염에 가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해양환경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한다.</p>
*연	<p>환경문제 실천이라.. 멀리 있는 듯 가까이 있는 듯하다. 막연하게 잘 안 떠오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학교 안에도 투명 페트병을 버리면 적립금으로 환원해주는 기계도 있고 플로깅 활동과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우리는 눈 뜬 장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보다 여러 실천방법이 있지만 몇몇의 변명을 앞세워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이번 북클럽 활동기간동안 살짝 반성도 했다. 몰라서 안 했는지 알면서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말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해 더 열심히 참여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제로웨이스트샵 방문과 플로깅 활동 등 현재 알아본 바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대체로 완료한 것 같다. 앞</p>

	<p>으로도 의식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일회성으로 한 번 관심 갖고 말 문제가 아니니까 말이다.</p> <p>*우 북클럽 활동 기간 동안 플로깅 활동을 같이 진행하며 조금 더 지구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었던 것 같고, 춘천에 단 하나있는 제로웨이스트 샵인 요선당에도 방문을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요선당이 폐업을 해서 굉장히 아쉬웠었다. 춘천에 하나밖에 없는 가게가 폐업을 한 부분에서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좋은 뜻을 가진 가게가 없어졌다는 것이 또 하나의 슬픈 점이였다. 역시 돈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뜻 깊은 가게가 이렇게 또 하나 사라지다 보니 가슴아팠었다.</p>
--	---



<p>활동 소감문</p>	<p>*수 나는 이전에 '삶에 대한 고민'이라는 주제로 북클럽을 진행했는데, 그때의 북클럽과 지금의 북클럽에서 책을 읽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다. 이전 북클럽은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책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자 했었다. 반면 이번 북클럽은 우리가 책을 읽고, 질문을 도출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두 북클럽을 비교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책을 읽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였다.</p> <p>학기 중에는 일이 많다. 내가 일을 벌려놓기를 좋아하는 탓이 크다. 일에 치여 바쁜 학기를 보내면, 간신히 생긴 쉬는 시간마다 책 읽을 생각은 하지 못한 채로 시간을 낭비해버릴 것이 자명했다. 북클럽은 그런 내가 책을 어떻게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강경책 중 하나다. 독서를 과제처럼 해치우게 되는 것은 아쉽지만, 완전한 나의 자유에 맡겨버리면 읽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그러니 이건 내가 나에게 주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p>
---------------	--

	<p>이번 북클럽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바쁜 2학기, 각자 나름의 애정을 가지고 지속한 활동이었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준 과제를 잘 이행했다고 생각한다(다들 수고했다!).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회학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책을 읽으며 떠오른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들은 분명 모두가 답을 알고 있을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 북클럽에서 습득한 이 지식과 경험들을 북클럽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 중요한 건 단순히 남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어지도록 하는 거니까.</p>
*연	<p>길 것 같았던 2학기 북클럽 활동이 단숨에 끝이 났다. 이번 북클럽을 통해 환경 오염의 실태와 그 해결 방안, 그리고 무엇이 지구 환경 유지의 핵심인지 알게 되었지만, 기술 발전이 계속되는 한 오염의 역치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힘으로 시작된 산업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힘으로는 역행할 수 없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오염을 정확하기 위해 나타난 새로운 기술이 아무리 친환경적이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과학의 진보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지구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서 빌려온 것이다.” 미 대륙 인디언들의 격언은 인류의 나태를 책임감을 내세워 일갈한다. 그들의 외침은 우리가 인간의 이기심을 절감하기 때문에 더 와닿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는 전인류적 애정을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자연과 인류가 공존하는 것만이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류가 실감하길 바라며 소감문을 마친다.</p>
*은	<p>북클럽 활동을 시작한 지가 엇그제인 것만 같은데 벌써 12월 달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 북클럽 활동은 내게 있어 굉장히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내가 현재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 하나와 공감이 아주 잘 맞았던 것 같다. 독서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의미있는 활동들. 내게 있어 2023년 2학기는 독서의 학기로 기억이 남을 것 같다.</p> <p>원래 관심이 많았던 주제인 해양오염에 관해 동기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발전시키는 일은 기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의사소통교육센터에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은 지경이다. 한 학기동안 바쁜 시간을 쪼개어 활동에 열심히 임해준 우리 팀원들에게 한마디를 전하며, 소감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정말 고생 많았고 북클럽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발전해나가는 시간 꼭 가지고 싶다! 너무너무 고생했</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78 268 654 313"></td> <td data-bbox="654 268 1484 313">어!!!</td> </tr> <tr> <td data-bbox="478 313 654 1276">*연</td> <td data-bbox="654 313 1484 1276"> <p>책과 함께 하는 토의활동이라니. 신청하는 순간까지 솔직히 마음이 반반이었다. 이로 인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치도 있었지만 나의 시간을 쪼개고 투자해서 일귀내야 하는 것이기에 귀찮음도 있었고 이렇게 투자한 만큼 좋은 결과와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그러나 활동을 진행할수록 이 시간이 정말 더 기다려졌고 기대됐다. 내가 자의적으로 이런 환경과학적인 책을 읽을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약간은 타의적이기도 했지만 더 폭넓은 분야에 내가 받을 담귀받다는 게 뿌듯하기도 했고 단순히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게 정말 흥미로웠다. 분위기가 또한 진지하기도 하면서도 가볍기도 했기에 거리낌없이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고 이렇기에 더 진심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주제를 잡으면서 문제 인식과 방안 제시에서만 끝나지 않고 최대한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를 떠올렸을 때 (개인적으로는) 말만 무성하고 행동으로는 잘 이행되지 않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유의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진행된 우리의 실천에 대한 노력들이 더 빛나고 있는 것 같다. 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소감문을 적는 게 아쉽다는 기분이 드는 것을 보니 내가 생각보다 이 활동에 더 많은 정을 쏟았던 것 같다. 더웠던 8월부터 눈이 내리고 있는 11월의 끝자락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줘서 고맙다는 말로 끝으로 남기고 싶다. 다들 수고했어 정말로.</p> </td> </tr> <tr> <td data-bbox="478 1276 654 1966">*우</td> <td data-bbox="654 1276 1484 1966"> <p>북클럽의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우리가 북클럽을 100% 활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막상 마지막 회차까지 오니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것들보다는 내가 못한 부분이나 환경에 대한 더 많은 실천들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모두가 바쁜 2학기에 이 활동에 열정을 가져주어서 너무 좋았고, 이 활동을 한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조가 가장 잘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다른 조 또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가장 궁금하다. 내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남이 이행해왔던 활동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것이 분명 있을테니까.. 중간에 진행했던 간담회처럼 마지막에 최종 결산을 하면서도 각 팀이 추구했던 방향, 해왔던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소감문을 쓰니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았다. 계속해서 아쉬움도 남고 미련도 생기지만, 이만 만</p> </td> </tr> </table>		어!!!	*연	<p>책과 함께 하는 토의활동이라니. 신청하는 순간까지 솔직히 마음이 반반이었다. 이로 인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치도 있었지만 나의 시간을 쪼개고 투자해서 일귀내야 하는 것이기에 귀찮음도 있었고 이렇게 투자한 만큼 좋은 결과와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그러나 활동을 진행할수록 이 시간이 정말 더 기다려졌고 기대됐다. 내가 자의적으로 이런 환경과학적인 책을 읽을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약간은 타의적이기도 했지만 더 폭넓은 분야에 내가 받을 담귀받다는 게 뿌듯하기도 했고 단순히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게 정말 흥미로웠다. 분위기가 또한 진지하기도 하면서도 가볍기도 했기에 거리낌없이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고 이렇기에 더 진심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주제를 잡으면서 문제 인식과 방안 제시에서만 끝나지 않고 최대한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를 떠올렸을 때 (개인적으로는) 말만 무성하고 행동으로는 잘 이행되지 않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유의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진행된 우리의 실천에 대한 노력들이 더 빛나고 있는 것 같다. 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소감문을 적는 게 아쉽다는 기분이 드는 것을 보니 내가 생각보다 이 활동에 더 많은 정을 쏟았던 것 같다. 더웠던 8월부터 눈이 내리고 있는 11월의 끝자락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줘서 고맙다는 말로 끝으로 남기고 싶다. 다들 수고했어 정말로.</p>	*우	<p>북클럽의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우리가 북클럽을 100% 활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막상 마지막 회차까지 오니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것들보다는 내가 못한 부분이나 환경에 대한 더 많은 실천들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모두가 바쁜 2학기에 이 활동에 열정을 가져주어서 너무 좋았고, 이 활동을 한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조가 가장 잘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다른 조 또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가장 궁금하다. 내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남이 이행해왔던 활동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것이 분명 있을테니까.. 중간에 진행했던 간담회처럼 마지막에 최종 결산을 하면서도 각 팀이 추구했던 방향, 해왔던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소감문을 쓰니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았다. 계속해서 아쉬움도 남고 미련도 생기지만, 이만 만</p>
	어!!!						
*연	<p>책과 함께 하는 토의활동이라니. 신청하는 순간까지 솔직히 마음이 반반이었다. 이로 인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치도 있었지만 나의 시간을 쪼개고 투자해서 일귀내야 하는 것이기에 귀찮음도 있었고 이렇게 투자한 만큼 좋은 결과와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그러나 활동을 진행할수록 이 시간이 정말 더 기다려졌고 기대됐다. 내가 자의적으로 이런 환경과학적인 책을 읽을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약간은 타의적이기도 했지만 더 폭넓은 분야에 내가 받을 담귀받다는 게 뿌듯하기도 했고 단순히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게 정말 흥미로웠다. 분위기가 또한 진지하기도 하면서도 가볍기도 했기에 거리낌없이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고 이렇기에 더 진심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주제를 잡으면서 문제 인식과 방안 제시에서만 끝나지 않고 최대한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를 떠올렸을 때 (개인적으로는) 말만 무성하고 행동으로는 잘 이행되지 않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유의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진행된 우리의 실천에 대한 노력들이 더 빛나고 있는 것 같다. 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소감문을 적는 게 아쉽다는 기분이 드는 것을 보니 내가 생각보다 이 활동에 더 많은 정을 쏟았던 것 같다. 더웠던 8월부터 눈이 내리고 있는 11월의 끝자락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줘서 고맙다는 말로 끝으로 남기고 싶다. 다들 수고했어 정말로.</p>						
*우	<p>북클럽의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우리가 북클럽을 100% 활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막상 마지막 회차까지 오니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것들보다는 내가 못한 부분이나 환경에 대한 더 많은 실천들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모두가 바쁜 2학기에 이 활동에 열정을 가져주어서 너무 좋았고, 이 활동을 한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조가 가장 잘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다른 조 또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가장 궁금하다. 내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남이 이행해왔던 활동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것이 분명 있을테니까.. 중간에 진행했던 간담회처럼 마지막에 최종 결산을 하면서도 각 팀이 추구했던 방향, 해왔던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소감문을 쓰니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았다. 계속해서 아쉬움도 남고 미련도 생기지만, 이만 만</p>						

	족하고 다음 학기에는 보완해야할 점들을 고쳐 더 나은 방향으로 복클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	---

2023년 11월 27일

참가자대표: 강*수